

배우자 이외 사람과 음행 말라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0>

근본 5계 가운데 세번째인 불사음(不殺淫)계는 남녀의 순결과 삶의 청정을 강조한 계율이다. (숫타니파타)에서는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 현명한 사람은 순결하지 못한 생활을 피하라. 순결한 삶을 살 수 없다면 적어도 남편의 아내(또는 남편)와의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능이라는 핑계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버려둔다고 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밝은 지혜를 등진 채, 무명성에 바탕을 둔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본능은 결과적으로 어둡고 추한

각별히 경계하신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 시되던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무시되면서 절제를 모르는 쾌락 추구의 삶으로 곤두박질치듯 빠져 들어가고 말았다. 최근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중적이고도 파렴치한 행태는 실망과 분노와 절망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감각적 쾌락을 찾기에 급급한 현대인은 허약하고

또는 남의 아내와 분별없이 놀아나는 것, 이것은 파멸의 문", "젊은 시절을 지난 남자가 유방이 팽팽한 젊은 여자에게 미쳐 그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은 파멸의 문"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런 남성은 결국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고, 다른 이에게 항상 비난을 받으며 자욕에 떨어진다(법구경)는 지적한다.

오계상경-14

출가자에게는 음행을 완전히 여의므로써 항상 번뇌와 욕망에 물들지 않는 법행(法行)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에서 일체의 음행을 금하는 계이지만, 재가자에게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음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문란한 성관계를 금지하는 계이다. 이 계율은 인간이 빠져들기 쉽고 부정당한 과보를 낳는 관능적인 쾌락을 절제하여 인간의 마음을 순화하고 욕망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깊은 업장과 번뇌의 세계에 대한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업장만을 길러낼 뿐이다. 탐욕심이 잘 살리고 하는 당연한 욕구라 하여 아무런 절제없이 무한정 추구하려 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와 불의까지도 서슴지 않는 추한 존재로 돌변하여 버린다. 비도덕적인 부정당한 행위는 우리의 청정한 본성을 탐욕의 굴레로 얽어매고 가리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사윤회의 세계가 전개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음욕에 힘쓰지 않도록

청정해야 번뇌·욕망 물들지 않아

사음 과보로 존경 잃고 패가망신

모호한 도덕적 기반에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존엄성까지 희생시키면서 무분별한 쾌락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것은 끝을 탐한 나머지 끝단지 속에 빠져 죽는 개미의 꼴과 닮아 있다. 진정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으로 진정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재가 불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오계 속에 "사음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포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음의 부정당한 행위를 일삼는 이는 어떠한 응보를 받게 될까? (화엄경) 「십지품」에서는 "사음의 죄를 범하면 삼악도에 떨어지며, 다시 사인으로 태어나더라도 정숙하지 못한 배우자를 만나거나 뜻에 맞지 않는 가족을 만나게 된다" 하였고, 또한 사음을 행한 과보로 복을 깎아내리고 주위 사람의 존경을 잃으며, 병을 얻거나 신용을 잃고 패가망신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요즈음 우리 주위에서

목격하는 바다.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물질화는 인간의 존귀함이 망각된 성의 상품화를 부추겼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성의 노리개가 되어 금전으로 매매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세계에서도 절제와 여과없이 쏟아지는 성의 상품화, 포르노 등 음란물의 범람으로 성적인 흥분을 강요하고 있는 세대에서, 순결과 정조를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살라는 말은 자칫 공허한 잠꼬대도 들릴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간 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작업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사음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원을 세워보자.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야기하는 고통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길러 각 개인, 부부, 가족, 사회의 순결성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것을 서원한다. 사랑과 책임감 없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원한다. 나와 남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사람에게 대한 나의 책임과 다른 이의 책임을 존중할 것을 서원한다. 온 힘을 다해 아이들을 성적 학대에서 지킬 것을 서원하며, 부부와 가족이 성적 방종으로 헤어지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서원한다."

(해인총림 율원장)

세운 '원' 바꾸지 마세요

오늘은 일요일이자 지장재일입니다. 일요일은 1주일 동안에 쌓인 피로도 풀고 밀린 일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신도들의 일요일을 눈여겨 보게 되면 한가함보다는 바쁘고 분주하다는 느낌이 역력합니다. 또 요즈음 사람들은 바쁘면 자기만 바쁘게 아니라 주변까지 분주하게 만듭니다. 불자들뿐만 아니라 우선 내 자신을 반성해 보면 조그만 일에도 바쁘다는 재촉을 많이 합니다.

시달린 경험이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참다보니 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깨달은 스스로의 생각은 사람이 살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을 고비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일 고비'입니다. 미움, 증오, 싸움 등의 사념들을 참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장애는 그 장애 속에서 보리도를 성취한다는 말처럼, 기도 중에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 장애를 많이 극복하다 보면 면적이 생겨 한결 여유로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법회중계

지장재일

(2000년 5월 21일)



성원스님

(강화선원사 주지)

잡념·미움·망상 등 기도중 생기는 장애 이겨내면 희열 느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 허리에 실을 못 꿰어 쓰듯 여유 있는 마음 가짐이 필요합니다. 요즘 제2의 경제위기가 온다고 할만큼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왕삼매론)의 경전 말씀에 의지해 열심히 기도하길 권합니다.

"지장기도 4천일 회향"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여러분들과 오늘같이 지장재일에 만난 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장보살이란, 지장보살님 때문에 생긴 날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중생을 다 건질 때까지 성불하지 않고 보살로 남아 지옥에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운 분입니다. 이렇듯 모든 기도에는 지장보살님처럼 원을 세워야 합니다. 원을 세우되 그 원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말고 평상시 신심을 내서 하는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하다보면 잡념과 사념 등 방해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미웠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실망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다보면 불교 주제 연구와 자연과학의 합리적·이성적·실증적 사상과 불교와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중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공부가 되며, 기도가 되는 줄 모르게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또 수행하는 선지식을 찾아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할 때 장애가 생기면 기도에 오히려 혼선이 올 경우가 생기므로, 선지식의 경험에 토대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선이 없아서 하는 것은 물론 서서하거나 누워서 하는 것 모두를 지칭하는데, 기도 역시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념으로 생각이 기도에 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로 생각됩니다. 평소 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정진을 게을리 한 불자들은 지장재일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다져 먹고 정진을 시작하십시오. 열심히 기도정진하시고 지장재일 오늘은 참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매화마을서 자비·화합정신 배워

세계의 불교학 <20> 프랑스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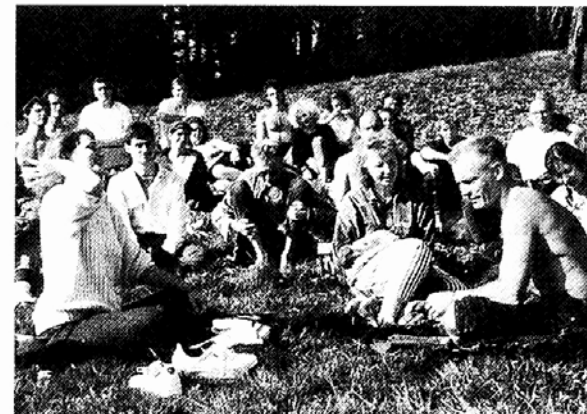
프랑스 불교학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수행처를 꼽자면 단연 탁남 마을의 매화 마을(Plum Village)이다. 이 곳은 프랑스 보드르 지방에서 자동차를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약 40여 명의 스님이 선방, 선전, 공양간, 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재가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불교학자들이 이 곳을 찾는 것은, 최고의 수행처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수행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매력 외에도,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프랑스로 이민 온 불자들에게서 다른 교리와 수행을 생생하게 보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프랑스 불교학계의 유럽 불교계처럼 서양 우월주의나 신적 개성 불교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프랑스 불교학은 주로 남방계 경전의 편견과 번역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다른 동아시아 불교 연구에 인색한 나머지 연구의 포괄성을 잃고 또 연구의 중복과 오류를 범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매화 마을에서 학자들이 아시아에 이주민들에게서 보고들은 새로운 연구 자료들은, 그들의 연구 태도의 변화를 증폭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던 셈이다. 변화란 바로 불교를 알기 전에 아시아를 바로 보자는 것이다.

매화 마을은 매일 아침 베트남어와 영어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 참선과 기도 그리고 설법으로 이어지는 평범한 수행 도량이다. 이중 이곳을 찾은 불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탁남 스님의 설법과 행선(Walking Meditation) 지도. 설법은 베트남어로 한 시간 정도 있는데, 영어와 불어가 동시 통역으로 진행된다.



프랑스 보드르 지방에 세워진 매화마을(Plum Village)에서 대중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 불자들.

학자들 탁남한 스님 방문 설법들어 연구점검하고 타종교와 대화 기회

에 살아가고 있는 대중들이 불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들과 형식을 벗고 깨달음과 행복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프랑스 불교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돌아보고 다른 불교와의 대화를 지속하고 타종교와의 협력과 사상 논쟁을 계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충분하다. 더욱이 1992년부터 매화 마을에 '불교의 체계적 연구' 과정이 개설돼,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수행도량에 서점과 도서관이 생기고 또 컴퓨터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경전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역경

프로그램과, 베트남 난민들을 돕는 원조 프로그램도 각각 진행되고 있다.

매화 마을의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 불교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촉발시키고, 다른 불교는 물론 종교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연관 학문 내의 불교 주제 연구와 자연과학의 합리적·이성적·실증적 사상과 불교와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오중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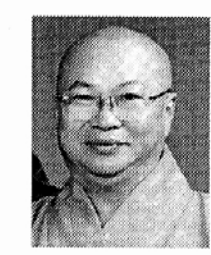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전/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체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재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효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술소소정액(松蘇素精液)」·「술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개)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변력 먹어도 변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피지며 대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림공원) 자연 공원에 의료법인 태평재단은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 1천명 수용의 식당, 900명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과 영안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진보의학 보살은 하루에 밤낮으로 중생의 고난을 구해주시는 천수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온갖 죄업이 소멸하는 대비주(大悲咒·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의 준말)를 천번 읽고 무릎이 썩고 고름이 나도 하루3천배를 하면서 3년간 기도정진 하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침과 약초를 받은 후에 인연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도 이들을 치료하니 본인이 알 정도로 진통도 없어지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게 되어 일주일 치료한 후에 완치된 기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를 무료치료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단, 완치된 분은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시설확장과 대작불사에 거금보시하십시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의 료 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북면 덕현리 산 8-4

불로화정본포